

★★★보상법규 답안지 잘 쓰는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론((강정훈 법학박사/감정평가사)

(제33회, 제34회 감정평가및보상법규 기출문제로 볼 때 이제는 강박사 스타일 3법 중심/3법 판례 시대/3법 숙달시대-한석봉 훈련)

“감정평가사 2차 수험생은 답안지로 말한다!”

보상법규 답안지 한면 쓰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한페이지당 최소 5분 이내 4분 30초(16면×5분 =80분) 목차 잡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이내로 하시면 전체 답안지 16면을 독파하실 수 있습니다.

40점이면 6페이지내외
30점이면 5페이지 내외
20점이면 3페이지 내외
10점이면 1.5페이지 내외
정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줄당 글자수는 보상 법규의 경우는 적게는 15자,
통상 20자에서 22자내외가 보기는 가장 좋구요,
23자이상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랜덤하게 잡아도 최소 18자이상 최대 22자 이내로 적어주세요.

이는 본인의 필력에 따라서 쓰는 속도라든가,
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쓰시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의 베타답안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30점 서의 경우는 10% 정도 2~3점내외 정도 쓰시는 전략입니다.

22줄 16면이니까 352줄입니다.

1점이면 3.52줄 약 4줄 정도가 1점이 되겠습니다. 이는 줄 띄어쓰기를 포함해야 하겠지요.

이를 계산하여 답안을 쓰는 훈련을 해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필력이 좋으신 분들은 답안지 한장을 더 받으셔도 되고요.

서론의 경우에는 10%정도로

40점의 경우 13-14줄 정도 적고요,

30점의 경우 10-12 줄 정도 쓰시면 됩니다.

20점의 경우 6-7 줄 정도 내외로

10점의 경우 4-5 줄 정도 쓰시면 됩니다.

아래의 답안지에서 이런 답안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II. 인 경우에는 아래의 예견되는 목차는 1,2,3 정도 목차가 있으면 됩니다.

내용이 길면 4까지 갈 수 있고요,

아라비아 숫자 목차 1,2,3 목차당

3줄에서 5줄 정도가 보기도 좋고 적당합니다.

내용을 가미해서 1점당 3.52줄을 써야 하는 걸 고민하면서

답안 작성에 돌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는 세부적으로 하지만 실제 답안지에서는

너무 세부적으로는 쓸수가 없습니다.

(1), 1), 이런 것들을 거의 실전 답안지에서는 쓸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답안지의 균형성등을 고려하여 답안의 내용을 충실히 적어주시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답안지의 균형성 목차의 균형성 등을 잡을 수 있겠지요.

배포해 드린 베타답안이나 모범답안을 통해서 균형성 있는 실전 답안지에 대한 감을 익히시면 됩니다.

배점 잡는 10분이 사실 보상법규 당락을 결정짓는 것이 실전입니다.

문제가 긴 경우에는 답이 정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 3~5회이상 꼼꼼히 읽어 보아야 합니다.

2. 내용의 승부를 가르는 키워드를 답안에 표현하는 방법

내용의 승부를 가르는 키워드는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중심적인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공용수용에서는 정당보상을 전제로 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적어주고.

비례의 원칙에서는 비례의 원칙의 보상법규 적용례를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득점 포인트입니다.

공용수용의 요건에서 문제에서

서론에서는 공용수용의 취지에 대해 기술하고,

이하 II. 목차에서 공용수용의 의의와 요건등을 기술해 나가는 기법도

좋은 답안의 기술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답안을 기술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득점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 문제에서 내가 논리구성하는 법리는 무엇인가?

등등 이와 관련된 본인의 서술 방식이 결정된 상태에서 답안을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 배점 3점 키워드 공용수용의 취지와 발전 방향 II. 공용수용의 의의 및 요건 기술, 공공성 판단, 8점 III.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8점 IV. 정당보상을 전제한 공용수용 8점 V. 결 3점 등 배점과 키워드 포인트를 먼저 잡은 연후에 내가 기술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은 상태에서 답안 기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안그러면 쓰다가 뒤죽 박죽 되는 경우가 많고, 쓰다가 아차 이 논리가 아니구나 하는 순간 머리는 멍 때리면서 답안은 망가지기 일쑤고 그러면 내년에 또 시험을 보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장에 배점과 키워드 배점을 고려한 답안의 전체 방향을 잡고

답안 쓰기에 돌입하는데...이때 들어가는 10분이 보상법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저와 함께 0기부터 4기(최종 2차시험 전주)까지 무진장 훈련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성공하면 시험은 다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본인의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필력이 좋으신 분은 양으로 이를 채울 수 있겠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지면안에 정해진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훈련과 반복, 그리고 답안 복기 또 복기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3. 최우선 작업은 내용과 요약할 수 있는 머릿속 지식의 습득과 정리된 자료 만들기

결국 정해진 지면 안에 정확한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머릿속 지식이 정리된 지식이어야 하고, 정제된 단어들과 득점 포인트 키워드가 문장안에 들어가야 합격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를 선행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하기 위해서는 다독과 정독을 통해서 본인이 보고 있는 자료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독과 정독에는 시간도 걸리고 중요도에 대해서 본인이 모를 수 있으므로, 감평행정법 동영상 강의나 보상법규 기본강의 동영상 강의를 2배속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회독 이상의 효과가 있어서 답안쓰는데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부라는게 휴발성이 있어서 그때 그때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법규 하루 공부노트, 보상법규 일기 등을 매일 씬으로 인해서 필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4. 글자가 예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훈련하기

글자도 예쁘고 내용도 좋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보통 악필이 더 많고 내용도 암호처럼 답안을 써서 잘 인식이 되지 않는 답안이 많습니다. 이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서 백강 고시체등 글씨 훈련하는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재를 통해서 글씨도 극복의 대상입니다. 실제 채점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아보기 힘들면 일단 채점자가 피곤해 지기 시작하니까요. 글씨도 하나의 중요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각 목차의 유기적 관련성과 적절한 규정 및 판례 기술하기

전체적으로 고도의 논리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목차의 유기적 관련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상법규 시험이므로 적절한 규정을 기술하는 것과 아울러 대법원 판례등을 부각해서 쓰는 것입니다. 학설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10여개를 넘지 않습니다. 보상법규는 실천 학문이므로 규정과 판례를 주로 잘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6. 쟁점과 논점을 부각시키는 답안 훈련하기

무엇보다 득점 포인트가 바로 바로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쟁점을 부각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목차 훈련입니다.

큰 쟁점 하나에 작은 논점 3개 정도로 보면 큰 목차에 세부 목차로 작은 논점들을 보여주는 답안 훈련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혼자 해도 잘 할 수 있지만 학원등에서 하는 강의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큰 쟁점 하나에 소 논점 3개 정도를 늘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7. 서론과 결론 쓰기 훈련

앞에서 공용수용의 요건 문제에서 서론에서는 공용수용의 취지등이 서론에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은 기본적으로 본 문제의 취지와 논술방향에 대해서 나름 수험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보통 설명형 문제에서는 서론이라고 쓰고.

사례형 문제에서는 논점의 정리, 문제의 제기, 쟁점의 정리 등으로 쓰기도 합니다.

본론은 말 그대로 물어본 문제의 중요 포인트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대체로 만약에 내가 출제자이거나 채점자이면 어떤 내용을 결론으로 써야 좋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결국 결론은 보상법규에서 제도개선등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실전 보상법규 1번과 2번 문제는 원칙보다 더 큰 합리성이 있는 예외가 출제됩니다.

그렇다면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판례도 많을 개연성 높습니다.

따라서 학설도 많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결론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다 보면 답안의 고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8. 각 쟁점별 본론마다의 소결과 검토 쓰기...그리고 선택과 집중

각 본론의 소결과 검토는 물어보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로 약술형이나 설명형에서 소결로 일반적인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형태로 기술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토는 판례와 학설등이 나눌 때 나는 어떠한 시각에서 본 소 논점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형태로 답안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답안 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봉 훈련만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보상법규 문제를 받자마자 승부의 10분을 위해

우리는 1년을 달립니다.

그 승부의 10분에 내가 선택한 것, 그리고 내가 집중한 것.

그리고 내 영혼을 마친 답안지는 나를 내가 꿈꾼 최고의 지점인 합격자 명단에

나를 올려 놓을 것입니다.

인생만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시험과 답안에서도 무조건 선택과 집중입니다.

강정훈을 선택하신 것은 탁월한 선택이고 여러분의 집중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통만이 인간을 완성으로 이끈다 - 니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3교시에 시험을 보는 과목이라 또하나 중요한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3교시까지 잘 버티죠. 보약도 먹고, 몸에 좋다는 거는 다 먹고, 하루 30분~1시간 운동도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출제위원이 말씀하시는 고득점 답안

【박정훈교수님의 좋은답안과 나쁜답안】 (출처: 박정훈교수님 기고)

□ 행정법에 대하여

사법시험, 행정고시 혹은 다른 필요에서 행정법 사례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감상은 “행정법은 대단히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평가하는 이가 대부분이다. 이는 아마도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행정법’이라는 단행법 없이 오직 수많은 개별법령으로 이루어진 탓에 그 근처에 흐르는 기본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아직 사회적 경험이 일천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행정법 관련 사실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어렵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개중에는 의외로 행정법은 “다른 과목보다 매우 쉽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들 또한 과세처분이나 영업허가 따위의 행정법적 사실을 경험한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것인데, 왜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일까? 이들과 대화를 하면 대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행정법 사례문제가 나오면 우선 처분성 유무를 논하고, 그 성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주체·내용·절차·형식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위법성의 정도는 행정법영역에서 대개 중대명백한 하자를 잘 인정하지 않으니 취소사유이고, 그래서 취소소송으로 몰아가서 검토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분류의 학생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행정법의 체계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이다. 필자 또한 교내식당이나 학교 근처 길 거리에서 수험생을 만나면 이와 비슷한 취지로 행정법에 관해 조언을 해주곤 한다.

그렇다면, 수험생이 아닌 행정법을 학문의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에게 있어서 행정법에 대한 감상은 어떨까? 필자와 같은 연구자의 관점은 수험생들의 그것과는 존재의 평면을 달리하지만, 역시 연구자의 입장에서든 행정법은 결코 만만한 법이 아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뿐이다. 다만, 연구자가 아닌 수험생의 입장에서 공부해야 할 행정법은 일정한 한계와 범위가 있으므로, 수험생들에게 간략하게 행정법의 기본체계만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어렵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일단 행정법 체계에 대한 학계의 담론을 무시하고, 오직 수험생들을 위해 행정법의 체계에 관한 개요를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법의 체계는 크게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의 절차법, 행정구제법으로 이루

어져 있다. “행정조직법”은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에 관한 법이다. 민법상 권리의 주체가 있듯이 행정법 분야에도 법인격을 가진 행정주체가 있고, 이러한 행정주체는 행정청을 통해 매일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이러한 일에는 행정주체 내부적인 일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해 대외적으로 작용하는 일이다. 이러한 행정작용을 공부하는 것이 “행정작용법”이다.

행정작용에는 다양한 형식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작용형식은 행정주체가 국민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서 명령·강제·금지·해제·설정 등을 하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행정작용에 대한 공부는 행정처분이 중심이 된다. 더불어 행정주체가 국민을 향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반드시 밟아야 할 절차로 ‘행정절차법’, 반대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민의 쪽에서 행정청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들에 관한 법들을 “행정의 절차법”(넓은 의미로는 행정절차법·정보공개법 이외에 정보공개로 인한 그 음지의 문제를 규율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등 개인정보보호법제를 포함한다)이라고 하고, 특히 현대 행정법에서는 절차법을 매우 중요시하므로 수험생들은 이 분야에 중점을 두어 공부할 필요가 있다.

만일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에 의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위법·부당한 행정활동 그 자체의 시정(수정)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前者가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이고, 後者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다.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를 묶어서 “국가보상법”이라고 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행정쟁송법’이라 한다.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행정구제법”이다.

이러한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의 절차법, 행정구제법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마치 인체처럼, 행정조직법이라는 머리가 있고, 행정작용법이라는 몸통이 있고, 행정의 절차법이란 양 팔이 있고, 국가보상법과 행정쟁송법이라는 두 다리가 있어 행정법을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법 공부의 핵심은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유기적으로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대표적 행정작용인 행정처분과 행정구제법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은 법치주의라는 레일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당장 눈에 보이는 레일로는 개별법령이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일도 있다. 바로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만일 법치주의를 위반하여 열차가 탈선하였다면, 우선 크레인으로 열차를 제자리로 끌어 올려야 한다. 이 작업이 행정쟁송이다. 크레인을 관할하는 곳이 행정부라면 행정심판, 사법부라면 행정소송이 된다. 이때 크레인의 종류도 탈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행정처분의 위법

성이 당연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에 따라 소송의 종류가 달라진다. 때로 탈선이 아니라 단순히 열차가 멈추어버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즉,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행정소송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행정쟁송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가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열차의 탈선, 무단 정차로 인해 승객이 입은 상처, 소지품 분실·훼손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국가배상법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손실보상제도이다.

이상은 행정법의 기본구조에 대한 아주 개략적이고 비유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의 절차법, 행정구제법이라는 큰 체계(이렇게 단순화시켜 볼 경우에도 “행정의 절차법”과 행정조직법·행정작용법·행정쟁송법의 상관관계에 대한 공부는 매우 중요하다)와 이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을 염두에 두고 행정법을 공부해 나간다면 단순히 교과서를 암기하는 공부와는 그 이해의 깊이와 속도가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마치 디스키조각모음처럼 두껍고 난잡한 교과서를 참고함에 있어서도 항상 이와 같은 행정법의 기본구조를 기초로 입체화·단순화하여 이해 중심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 사례문제의 해설 방법론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답”을 제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례문제의 해설방법론에는 백가쟁명이 가능하나, 이하에서는 필자가 생각하는 사례해설의 방법론을 형식적 방법론과 내용적 방법론으로 나누어 간략히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사례문제의 구성방법을 생각해본다.

I. 형식적 방법론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 사례문제의 답안작성에 있어 채점자가 읽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다. 답안작성에 있어 형식적 측면의 유의점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 문장을 짧게 작성한다

고전적으로 “원 센텐스 원 테마”라는 원칙이 있다. 이는 하나의 문장 속에 하나의 의미밖에 넣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시험답안으로서 사례해설은 논문을 작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원칙에 입각하여 가급적 하나의 문장을 2~3줄 이내로 작성하는 기법을 채택하는 것이 의미전달이나 읽기에 좋다고 본다.

2. 접속사의 적절한 사용, 인용문이나 핵심어에 대해 강조 표시를 한다

원래 “원 센텐스 원 테마”의 원칙은 논리 흐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문장이 길어지면 전후의 논리관계가 불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의 문장을 짧게 서술하고, 대신 문장을 적절한 접속사로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 이때 접속사에 쉼표 「,」를 붙여 채점자가 접속사를 순간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답안내용의 논리적 전달에 유용하다고 본다. 또한 문장 중의 인용문이나 주요 핵심어에 대해서는 강조 표시를 하여 채점자로 하여금 키워드를 인지하도록 배려할 필요도 있다.

3. 적절히 문장의 단락을 나눈다

모든 문장은 의미를 지닌 것이므로 문단의 구성은 그 기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락에 7~8줄을 넘지 않는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는 “원 센텐스 원 테마”원칙의 확장으로 이해해도 괜찮다. 특히, 문단의 구성에 있어서 이유·논거 등을 결론·검토 등과 동일한 단락 내에서 기술하여서는 안 된다.

4. 목차를 붙여 작성한다

답안작성에 있어 목차는 사례문제의 “지도”에 해당된다. 특히, 제시·발견된 쟁점을 대목차로 구성할 경우 가능한 글 중앙에 표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한, 목차는 채점자가 그 타이틀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답안지의 논리적 전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내용이 없는 지나친 세목은 채점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이다.

5. 기타

사례문제에서 제시된 배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분량을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약 4년간 학내 고시부 지도교수를 맡아 본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필체가 좋은 학생이 낙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악필을 가진 수험생이 합격하는 예는 드물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결국 악필인 수험생이라면 상술한 형식적 방법론에 따라 답안의 작성방법을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대상이라고 본다. 시험에서는 그 작성의 형식이나 기술도 직·간접적으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악필이라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가급적 다소 적은 양을 답안지에 적더라도 최대한 알아보기 쉬운 필체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신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점은 형식적인 작성 방법론을 통해 커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악필인 수험생은 매일(혹은 매주) 1회정도 사례문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실력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내에 자신으로서는 최선의 필체로 답안을 현출해내는 능력을 위한 연습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II. 내용적 방법론

전술한 형식적 방법론은 어디까지나 주어진 사례에 적합한 해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내용적으로 사례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다. 이하에서 몇 가지 내용적 측면의 유의점에 대해 기술한다.

1. 사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자

주어진 사례의 문장을 통해 사안이 지닌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여 사례에서 제시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흔히, 긴장된 시험장 분위기 속에 주어진 질문을 자신이 평소 기억하는 논점으로 착각하고 제시된 사실관계를 이탈하여 설문과 관계없는 논점을 전개하거나, 사례를 대충 파악하고 그물망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해설의 첫 걸음은 주어진 사안에 몰입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2. 질문쟁점에 대해 법리적인 “논증”을 통해 “대답”하라

종래 쟁점발견형 문제에 있어서는 쟁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으나, 최근 쟁점제시형 문제에서는 쟁점 그 자체를 발견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제시된 쟁점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어떻게 답할 것인가이다. 물론 법리적 논증조차 하지 못한다면 답을 쓰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쟁점에서 묻는 질문에 대해 법리적으로 논증만 하고, 정작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채점자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답안작성은 무성의한 답안으로 비추어진다. 채점자는 답안에 기술된 내용만 검토하지 그 전제가 되는 논증을 토대로 도달하게 될 답을 상상해서 채점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논증도 중요하지만, 불과 2~3줄 정도라도 질문에 대한 답을 기술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논증은 주어진 사례 해결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교과서에서 관련분야의 학설·판례를 답안지에 그대로 배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되며, 답 또한 논증을 통해 도달하는 결과여야 하지 아무런 논증을 하지 않은 채 뜬금없이 답을 기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 채점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것이다.

3. 조문의 인용·문언해석에 철저한 자세를 보여라

사례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료에는 법이론·판례만이 아니라, 주어진 참조 조문과 배포된 법집이란 또 다른 재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교과서적 학설과 판례에 얽매어 조문의 인용·해석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법조문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최근의 출제경향은 배포법전과 사례에 더해 다양한 참조조문이 주어지기에 이들 조문을 잘 인용·적용·해석하는 능력을 표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주어진 쟁점에 대해 처음부터 학설·판례의 문제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률조문의 어떠한 문언이 문제가 되는가, 그 요건은 어느 주문의 문언으로부터 나오는가, 등등 법률조문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처럼 법률조문에 기초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채점자에게 법률적 기초를 알고 있다는 좋은 인상을 줄 것이며, 득점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예상치 못한 문제가 출제된 경우 사례해결의 단초는 법률조문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법적인 삼단논법에 입각하여 사례를 해결한다

사례로부터 사안을 인지한 다음 문제제기(쟁점정리 혹은 논점정리)를 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적용될 법규·학설·판례를 확정하고, 그것을 문제된 사안에 적용시켜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순서를 밟아 가는 것이 사례해결의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사례문제에 대한 답안작성에 있어서는 이들 각각의 순서를 구별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복잡한 사례인 경우에 단순화된 답안을 기술한다

만약 제시된 사례가 복잡한 사안이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더욱 많은 논점을 생각하고,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결국 매우 산만하고 정리되지 않는 답안을 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역으로 사안이 복잡하다면 쟁점별로 강약을 조절하여 쇼트컷 기법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필요한 능력일 뿐만 아니라, 채점자의 입장에서 산만하고 지저분한 답안해설보다는 답안을 일독하였을 때 이해가 되는 쪽이 아무래도 득점에 유효할 것이다. 즉,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심플하면서도 에센스만 담은 답안해설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Ⅲ. 사례문제의 구성방법

사례문제의 답안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각인각색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이 끝나면 관행처럼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지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답안구성에 비판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이론과 실무의 가교’로서 다양한 시도의 사례형식(예컨대, 행정심판의 재결문을 쓰게 하는 형식, 주어진 판례들을 비교평가하게 하는 형식 등)을 통한 법률지식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점에서 현재까지의 관행을 존중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사례문제의 구성방법을 제시한다.

1. 서론부분의 구성방법

사례문제의 해결에 들어가는 서론은 “문제의 소재”, “쟁점의 정리” 등 다양한 테마로 접근할 수 있으나, 그 타이틀은 별론으로 하고 사례에서 문제된 쟁점의 서술구성을 예고할 필요가 있다. 종전과 같이 “쟁점발견형 사례문제”의 경우라면, 어떠한 문제점

이 있는지 사례문제의 논점을 명확히 하고(문제의식), 어떠한 관점으로 쟁점에 접근할 것인지 사례문제의 기본방향을 분명히 한다(해법). 그런 다음 어떠한 순서로 서술할 것인지 각 쟁점별로 무엇을 논할 것인지를 서술하고(실천), 어떠한 방향의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기술한다(결론). 그러나 현재와 같이 “쟁점 제시형 사례문제”가 나온다면 문제의식, 해법, 실천, 결론을 쟁점별로 간단히 기술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한, 사례문제의 서론부분은 사람 사이의 첫 대면과 같아서 쟁점발견형이든 쟁점제시형이든 가능한 한 서론에서 자신감 있고 깔끔한 문장으로 채점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본론부분의 구성방법

사례문제에서 본론부분은 서론부분에서 제시된 개별적 쟁점을 그대로 끌어와서 각 장으로 나누어 서술하면 된다. 각 쟁점은 반드시 소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되 항상 참조조문·학설·판례를 빠짐없이 기술한다. 다만, 이 경우에 소논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간결하고 힘 있는 문장으로 학설·판례 등에 대해 핵심적 내용을 종합적·입체적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른 견해가 있는 경우에는 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한지 그 법리적 논거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도 잊어서도 안 된다. 그 외에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사례문제에 첨부된 참조조문과 배포된 법전을 충분히 활용하여 각 쟁점의 서론은 물론 본론부분에서 적절히 인용·해석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본론부분을 기술함에 있어서는 각 쟁점별로 법적인 삼단논법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3. 결론부분의 구성방법

결론부분에서는 위 본론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금후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간략히 기술한다. 특히, 최근의 출제경향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여러 쟁점을 제시하는 쟁점제시형 문제에 있어서는 각 쟁점별 서론, 본론, 결론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제시된 사례 전체에 대한 검토결과를 결론으로 하여 사안의 해결 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좋은 답안과 나쁜 답안에 대한 생각

위에서 기술한 사례문제의 해설 방법론을 토대로 좋은 답안과 나쁜 답안에 대한 몇 가지 경험칙에 의거한 생각을 기술하고자 한다. 좋은 답안은 어떠한 답안지인가? 수험생들은 누구나 각자 대학 혹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로부터 다소 추상적인 지도이기는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잘 이해가 되는 답안”이 가장 잘된 답안이란 얘기를 여러 차례 들을 것이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학내외에서 수차에 걸쳐 정규 학사과정상의 평가시험·모의시험 등을 통하여 답안작

성(연습)을 해본 경험이 있으며, 사법·행정고시·입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 행정법 주관식(논술식) 실전시험에서 각자 자신의 실력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답안을 작성한다. 그러나, 채점자의 입장에서 답안지를 대하면 평가자의 입장이어서 그런지 잘된 답안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왜 수험생들이 이렇게 허술한 답안을 작성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서 답안작성에 대한 세세한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기술하였으므로 가급적 평가자의 입장에서 “좋은 답안과 나쁜 답안”은 어떠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필자의 평소 경험과 생각에 의한 다소 주관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간략히 서술한다.

I. 좋은 답안

1. 출제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답안

좋은 답안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주어진 사례에 대한 물입을 통하여 출제자가 무슨 쟁점을 묻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답안일 것이다. 출제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가자(채점자)에게 매우 나쁜 이미지를 주는 것은 물론 주어진 쟁점에 대해 채점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출제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의 답안지는 평가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 첫째는, 사례문제의 출제자가 출제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수험생들이 당해 문제에 대해 답안지에 기술될 것을 요구 혹은 기대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답안지이다. 둘째는, 수험생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 출제자가 서술하도록 요구 혹은 기대하지 않는 쓸데없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는 답안지이다. 즉, 쟁점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고 무관한 내용을 교과서식으로 기술하지 않은 답안이어야 한다.

2. 평가자가 읽어서 잘 이해되는 답안

좋은 답안은 상술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 출제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답안이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답안지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좋은 답안은 답안의 구성은 물론 내용적으로도 평가자가 일독함으로써 금방 그 수험생이 답안지를 통하여 기술한 내용·기술취지가 이해되는 답안이다. 이를 좀더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험생이 출제의도를 잘 파악한 다음, 제시된 쟁점과 관련하여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내용에서 중심명제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이를 평가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한 답안이다.

둘째, 답안지에 기술된 내용이 왜 수험생이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지 평가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답안이다.

셋째, 답안지에 기술된 내용상 법리적 논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실정법 조문 • 판례 • 학설 등)이 입체적으로 충분히 서술하고 있어 평가자는 물론 제3자가 읽어도 설득력이 있는 답안이다.

3. 평가자가 읽는 중에 즐거운 답안

아마도 앞 1, 2에서 기술한 내용을 충족하는 답안만으로도 합격에 도달할 수 있는 답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점만 유의하여도 상당히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여기에 더하여 진정한 프로 혹은 매우 우수한 답안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채점자가 답안지를 읽는 중에 즐거운 답안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답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적시하는 점을 갖춘 답안이어야 한다.

첫째, 사례형태로 제시된 문제의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혹은 대응하려고 하는) 답안이다.

둘째, 제시된 사례의 쟁점과 관련하여 수험생 자신만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차별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혹은 기술하려고 하는) 답안이다.

예컨대, 국가배상책임 분야에서 제6조 제1항(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과 관련한 사례문제가 출제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상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과 제6조 제1항의 관계에 대해 전자가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배상책임자임을 이 법의 구조 • 취지 등을 통해 명확히 관계설정 한 다음, 제6조 제1항과 관련하여 규정의 취지, 해석론 • 판례가 어떠한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취해야 하는데, 통상 수험생은 이 경우에 제2조와 제5조를 등한시하거나 관계설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그냥 암기하여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면 평가자가 읽는 중에 즐겁기는커녕 짜증만 난다.

II. 나쁜 답안

1. 출제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는 답안

앞에서 좋은 답안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첫 번째 기준으로 언급하였듯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출제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나쁜 답안이 될 것이다.

첫째, 주어진 사례문제와 관련하여 수험생에게 쟁점의 제시부터 논증에 이르기까지 서술할 것으로 요구 혹은 기대(예상)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는 답안이다.

둘째, 주어진 사례문제의 해결을 위해 요구되지 않는 쓸데없는 내용이 기술된 답안이다.

2. 평가자가 읽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답안

출제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답안은 더 이상 ‘좋은 답안 • 나쁜 답안’의 기준에 입각하여 논의할 의미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설령 수험생이 출제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전제로 법적인 논증을 해 간다고 해도 서술의 내용상 다음의 경우에는 나쁜 답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시된 사례의 쟁점과 관련하여 서술된 내용이 무엇을 논증하고자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답안이다.

둘째, 하나의 문단 혹은 하나의 쟁점에 대한 기술내용 중에 둘 이상의 의미로 파악되거나, 서술내용이 자신감 없는 상태에서 애매모호한 형식으로 기술한 답안이다.

셋째, 짧은 답안지에 쟁점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사안을 해결하는데 사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장 중에 기술된 내용이 무슨 의도 • 의미로 그러한 서술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답안이다.

넷째, 문제된 쟁점에 대한 법리적 논증은 법학의 기본개념과 중심단어를 통한 논리적 연결에 기초한 전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수험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답안의 내용적 • 형식적 기본도구가 논증을 통한 사안해결의 관점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답안이다.

다섯째, 답안지에 기술되어 있는 글 중에 앞뒤의 문장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기술된 답안이다.

3. 평가자가 읽는 중에 즐겁지 않는 답안

앞 1, 2에 해당되는 답안이라면 나쁜 답안으로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 2에서 나쁜 답안으로 적시한 경우를 대충 피해간다고 해도 평가자가 답안을 읽고 답안지 속에서 다음의 경우를 발견하면 불쾌하거나 흥미 없는 답안으로서 나쁜 답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례에서 제시된 쟁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쟁점의 외연을 빙빙 돌면서 논점으로부터 피해가려는 인상을 주는 답안이다.

둘째, 사례설문 혹은 참조조문 등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쟁점의 법리적 논증에 실패하고 있는 답안이다.

셋째,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행정법지식을 계속 추상적으로 되풀이 하거나,

논증과 관련하여 학설·판례의 경우에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뜬금없이 “어떠한 입장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맹종하는 답안이다.

넷째, 행정법사례문제는 제시문 자체가 본질적으로 구체적이며, 사안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이 참조조문으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안의 내용은 관련분야의 교과서를 암기하여 그대로 옮겨 둔 채 일반론·추상론적 접근만으로 만족하고 실정법·판례·학설을 통한 입체적·구체적 논증을 하지 않는 답안이다(서술내용이 누워있는 답안).

다섯째, 기타 자신의 의견만 장황하게 기술하면서 판례·학설에 대해 교육적 태도로 훈시하는 형식으로 기술하거나(…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임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등등), 문장 중에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법률용어가 있음에도 조악한 사실적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거나, 일응 답안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답안의 내용은 자신이 알고 있는 도그마에만 집착하고 그 자체로 완결적이라고 생각하는 답안 등이다.

이상, 필자가 생각하는 “좋은 답안·나쁜 답안”에 대해 세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각 기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의 답안을 적시하였다. 수험생들에게 더 친절한 참고·안내를 위해서는 실제의 사례문제와 견본답안지를 제시·기술하고 싶지만, 지면 관계상 이에 대해선 이 다음에 수험생을 위한 작은 과제로 남겨둔다. 다만, 필자의 기술내용을 일독한다면 조금이라도 행정법을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